

LG AI연구원-유네스코, 교육 기반 ‘책임있는 AI’ 시대 선도

‘AI 윤리 MOOC 프로젝트’ 론칭
온라인 교육과정 공개… 무료 수강
사례 기반 연구 프로그램 확대 계획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AI 윤리 교육 과정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윤리 확산에 나섰다.

LG AI연구원은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유네스코와 함께 ‘AI 윤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프로젝트’ 글로벌 런칭 행사를 열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한 중인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흥헌익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지난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약 2년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번 AI 윤리 MOOC를 선보이게 됐다.

프로젝트는 AI 개발자와 연구자, 정책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2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AI 윤리 MOOC 프로젝트 글로벌 런칭 행사를 열었다

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국의 민간 AI 연구기관이 유엔 전문가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LG AI연구원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능 경쟁뿐 아

니라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와 국제기구들도 AI 안전성과 윤리 교육, 국제 공조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가 선보인 교육 과정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AI 윤리 권고’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윤리 원칙을 소개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개발자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세계적인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전 세계 누구나 국가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책임 있는 AI 개발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10개 모듈로 구성된 교육 과정에는 카네기멜런대와 스탠퍼드대 메코이 윤리 센터, 옥스퍼드대 인터넷연구소, 뮌헨공대 사회과학기술대학, 앨런 튜링 연구소 등 글로벌 AI 윤리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도 강의 개발에 참여해 다양한 지역의 정책과 사례를 반영했다.

또 국제지문그룹에는 하버드대와 뉴욕대, 토론토대, 노르트담대, 유엔대학교, 유네스코 세계과학윤리위원회(COMEST), 모질라 재단 등 글로벌 학계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 과정의 완성도를 높였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이번 MO

OC를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례 기반 학습과 실습을 포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국내 AI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5~10개 거점대학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LG AI연구원은 앞으로도 유네스코와 함께 AI 윤리 글로벌 포럼과 AI 서울 정상회의,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주요 국제 논의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윤리는 기술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원칙이자 실천”이라며 “이번 글로벌 MOOC가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산업계 전반에 책임 있는 AI 혁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 루브르 작품 등 아트 TV 생태계 확장

삼성 아트 스토어에 작품 대거 추가
아트 바젤 홍콩 등 글로벌 협업 확대

삼성전자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 소장 작품을 대거 추가하며 TV 기반 예술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TV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아트 TV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 34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루브르 컬렉션은 기존 17점에서 총 51점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공개된 작품은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예술 사조를 대표하는 명작들이다. 프랑스 신고전주의와 아카데미즘 회화를 대표하는 도미니크 파페티의 ‘우물가의 그리스 여인들’과 니콜라 푸생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등이 포함됐다.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루브르 박물관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Orpheus and Eurydice)’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이와 함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그랑 오달리스크’ 등 루브르 대표 소장 작품도 계속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루브르 컬렉션 확대를 계기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현대미술

관(MoMA), 오르세 미술관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아트 바젤 홍콩, 아트 바젤 바젤 컬렉션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글로벌 미술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구독 서비스로, 117개국 이상에서 800명 이상의 작가와 80여 개 문화예술 기관의 5000여 점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올해 출시된 OLED(SH95)를 비롯해 더 프레임, 더 프레임 프로, 마이크로 RGB, 네오 QLED 등 2026년형 삼성 아트 TV 라인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욤 로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부사장은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최고 수준의 예술 및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삼성 아트 TV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수백만 가정에 당대 최고의 걸작들을 선보이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네이버, 조선산업 AI 전환 ‘맞손’

조선업 특화 AI 인프라 구축
미래 선박 기술개발 공동 추진

HD현대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조선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나선다. 양사는 조선업에 특화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조선소와 미래 선박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업 특화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및 통합 전력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중심 선박(SDV) 및 조선 AX(AI 전환) 기술 협력 ▲피지컬 AI·로봇 기술 활용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우선 조선업 맞춤형 클라우드와 AI 팩토리를 구축해 설계부터 생산, 연구개발에 이르는 조선 사업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공동 전문조직을 구성해 AI 활용 모델 발굴, 기술 검증,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도



HD현대가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HD한국조선해양 김형관 대표,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추진한다. HD현대가 보유한 친환경 엔진 기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해 데이터센터용 전력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현에도 나선다. 양사는 선박 데이터 플랫폼과 AI 소프트웨어, 로봇 기술을 접목한 AI 모델을 공동 개발·실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선박을 제어·운영하는 SDV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LS, JCR ‘A0’ 신용등급 획득… 안정적 수익구조 인정받아

日 등 해외 자금 조달조건 개선 기대

LS가 일본 신용평가사로부터 우수한 신용도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해외 자금 조달 기반을 넓히고 조달 비용 절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LS는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JCR로부터 ‘A0(안정적)’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LS의 ‘A0’ 등급 획득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신용도를 공인받은 것으로, LS의 사업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JCR로부터 A0 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국내 신용도는 AA-수준인데 반해, (주)LS는 A+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인정받은 셈이다

JCR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주)LS는 L S전선, LS일렉트릭, LSMnM 등 확고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사업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연결 기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LS는 국내 신용평가사들

로부터도 신용등급 전망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지난 6월 말 (주)LS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으며, 이번 전망 변경은 향후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LS 관계자는 “JCR로부터 ‘A0’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일본 은행과의 대출 약정을 확대하고 금융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엑스봄 스테이지 501’ 출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파티용 블루투스 스피커 신제품을 선보이며 휴대용 오디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강력한 출력과 공간에 맞춘 음향 보정 기능을 더해 실내의 어디서나 공연장 같은 사운드 경험을 제공한다.

LG전자는 파티용 블루투스 스피커 신제품 ‘엑스봄 스테이지 501’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스봄 스테이지 501은 파티의 분위기를 완성시켜주는 강력한 사운드와 공간

을 무대로 바꿔주는 AI 노래방 마스터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적인 뮤지션 월아이엠이 튜닝한 엑스봄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 피어리스의 음향기술이 담긴 2개의 우퍼와 2개의 전대역 드라이버를 통해 파워풀하게 구현한다.

제품 색상은 블랙, 크기는 폭 30cm, 높이 59cm, 깊이 30cm가량이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무선 재생이 가능하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69만9000원.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숍 LGE닷컴과 온라인 전문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